

2 한국 금융 위기와 일본 은행의 리스크

- (對韓 용자 현황) 주요 선진국의 對韓 용자액 중 일본 은행의 비중은 24.3%(96년말 기준)이나 일본 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통한 용자액까지 고려한다면 對韓 용자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
- (對韓 용자의 리스크) 향후 한국의 경제·금융 위기가 지속되면 일본 은행의 채권 및 자산의 불량화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임
- (시사점) 일본의 경기침체와 超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일본 자금이 아시아 위기의 발단을 제공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음

○ 對韓 용자 현황

- 일본의 對韓 용자 비중을 96년말의 24.3%로 가정한다면 97년 9월말 현재 일본 은행의 對韓 용자 추정액은 280억 달러(약 3조 7000억円)를 상회할 것임
 - BIS 가맹국 은행의 對韓 용자는 96년말 999억 달러에서 97년 9월말에는 1,168억 달러로 대폭 증가
-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일본 은행의 해외지점, 현지법인을 경유한 對韓 용자를 고려하면 실제 용자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
 - 일본 은행의 해외지점, 현지법인이 용자한 경우, 통계에는 현지국이 용자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용자 규모가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

<BIS 가맹국 은행의 한국 대출 상황>

(1996년말 현재)

국별	일본	독일	미국	프랑스	영국	벨기에	네델란드	캐나다	기타	총계
금액(억불)	243.2	99.8	93.6	88.9	56.4	37.3	19.3	13.6	347.4	999.5
비중 (%)	(24.3)	(10.0)	(9.4)	(8.9)	(5.6)	(3.7)	(1.9)	(1.4)	(34.8)	(100.0)

○ 對韓 용자의 리스크

- 일본 금융기관들의 對韓 용자의 약 70%(96년)가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므로 한국의 향후 유동성 확보는 매우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 - 또한 한국의 은행들은 낮은 금리의 외국 통화로 용자를 받아 이를 원화로 전환했는데 최근 원화 폭락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
- 한국의 對日 수입액은 96년에 294억 달러인데 그중 20~30%가 外貨 파이낸스로 수입결제를 연장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58억~88억 달러에 달함
 - 여기서 外貨 파이낸스는 일본 수출업자에 의한 與信이므로 최근 한국의 통화 급락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이 됨

- 한국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금리가 높은 원화로 전환하지만 수입대금은 지불을 가능한 늦추는 경향이 있음. 이 경우 수출측의 파이낸스를 받게 됨
- 일본은 98년 4월부터 '조기시정조치'를 실시함에 따라 은행들은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됨
- 그러므로 은행들은 3월말까지 불량채권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
- 이 시점에서 만약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諸國에서 일본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그 위험성은 엄청난 것임
-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경제·금융위기가 지속되면 일본 금융기관들의 채권 불량화와 자산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

(『エコノミスト』, 1998年 1月號)

○ 시사점

- 일본은 90년대초 버블 붕괴와 함께 부동산 및 주가 등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에 수십조 엔에 달하는 불량채권이 발생했음
- 버블 붕괴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음
-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금리 인하라는 미봉책으로 대처했음
- 일본의 금리는 공정한인율이 1991년 6%에서 몇차례 인하를 거쳐 95년에는 0.5%까지 낮아지는 超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음
- 일본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超저금리에 직면한 일본의 은행은 보다 수익율이 높은 해외로의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기 시작, 이 때 주요 대상이 된 곳이 당시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이었음
- 일본의 경기침체와 超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일본자금이 아시아 위기의 발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
-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무분별한 투자를 행한 현지 경제 주체에 있지만 일본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음
-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면서도 수입 시장 개방에 인색하여 주변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음
- 최근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부실채권의 누적을 회피하려는 일본 은행들의 자금회수 러시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일본의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(정 오 영)